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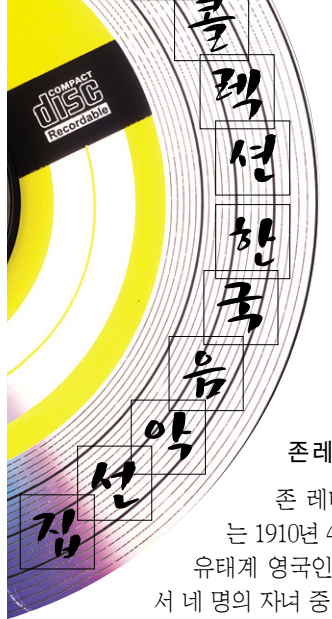
존 레비 컬렉션 속 불교 음악 발굴

‘존 레비 컬렉션 한국음악선집’ 출반한 김선국 저스트 뮤직 대표

얼마 전 한 음반이 출시됐다. ‘존 레비 컬렉션 한국음악선집’은 출반 되자마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다. 음반은 1964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인 존 레비가 수집한 한국전통음악 자료들을 복각해 만들어졌다. 이 음반이 많은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된 이유는 외국인인 한국전통음악을 녹음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존 레비가 녹음한 음악들은 전통음악의 불모시대였던 1960년대 음악이라는 점과, 그가 만난 음악가들이 당시 한국음악계의 최고 음악가였던 사실, 또 여태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속음악이 대거 수록되었던 점이 자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존 레비의 음원들은 1960년대 한국음악의 초상(肖像)으로 한국음악 역사를 증명하는 학술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이다. 이런 존 레비를 국악계에 단비 같은 존재로 만든 사람이 있다. 바로 저스트 뮤직 대표인 김선국(42) 프로듀서이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던 2월 10일 김선국 대표를 만나 그간의 앨범 준비 과정 이야기를 들어봤다.



존 레비(John Levy, 1910~1976)는?

존 레비(사진)는 1910년 4월 28일 유대계 영국인 가정에서 네 명의 자녀 중 막내 외아들로 태어났다. 다재다능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이었던 그는 유대교와 이슬람수피교를 비롯해 힌두교에 심취해 있었다. 그가 1958년~1971년 녹음한 자료들은 대부분 종교음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가 방문했던 국가의 전통음악 자료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존 레비 컬렉션 중에는 한국 인도 부타 스리랑카 대만 홍콩 아이슬란드 등에서 수집한 자료도 있다.

존 레비는 1964년 한국음악 녹음 당시, 귀화 국악인 일란 헤이만과故 이혜구 박사를 비롯한 문화계 인사 및 국악계 학자와 연주자들을 만나 자문을 얻었으며, 현재 하와이 주립대 이병원 교수의 통역으로 녹음을 진행했다.

그는 50일간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궁중음악, 풍류음악 등을 먼저 녹음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민요와 칠머리당곡의 초감제를, 이어 서울에서 민속음악과 봉원사의 불교음악을 녹음했다.

존 레비는 1974년 겪은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1976년 12월 28일 사망하기까지 평생을 음악에 심취했던 인물이었다.

“파리에서 1968년도 발매된 ‘한국의 불교음악’을 발견한 것이 존 레비와의 첫 만남이었죠. 세상에는 미처 다 알려지지 못한 음악선구자들이 많습니다. 존 레비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김선국 대표가 존 레비에 대한 존재를 안 것은 2008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였다. 여행을 좋아하는 김 대표는 평소 파리를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우연히 들린 어느 한 음반가게에서 존 레비의 ‘한국의 불교음악’이라는 음반을 발견했다. 존 레비와 김선국 대표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졌다. 김 대표는 그날을 “거대한 여행자가 어느 지루한 날 발견한 보물 같은 음반”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의 불교음악”을 발견한 김 대표는 그때부터 존 레비에 대한 발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존 레비의 발자취를 뒤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앨범이 제작되기까지는 총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김 대표는 “그 과정은 정말 소주 없이 말하지 못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천성이 ‘흔들’ 기질이예요. 지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욕심은 있었죠.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자 더욱 이를 악물고 뚝뚝.”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존 레비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과의 계약문제였다. 에딘버러 대학은 존 레비가 남긴 방대한 녹음테이프들과 사진자료, 현장메모와 서류 등을 유족들의 기증에 의해 ‘존레비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계속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절하는 에딘버러대학 측에 매일같이 전화를 건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보통 인내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에딘버러대학교와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죠.”

어렵게 대학 측 승인을 얻어 존 레비의 자료들을 열람했을 때 그는 정말 놀라지 않을



‘존 레비 컬렉션 한국음악선집’ 음반을 출시한 저스트 뮤직 김선국 대표.

수 없었다. 존 레비가 녹음한 자료 테이프는 700여 개가 넘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또한 존 레비는 당시 최고급 스위치 녹음기를 사용해 음원상태도 양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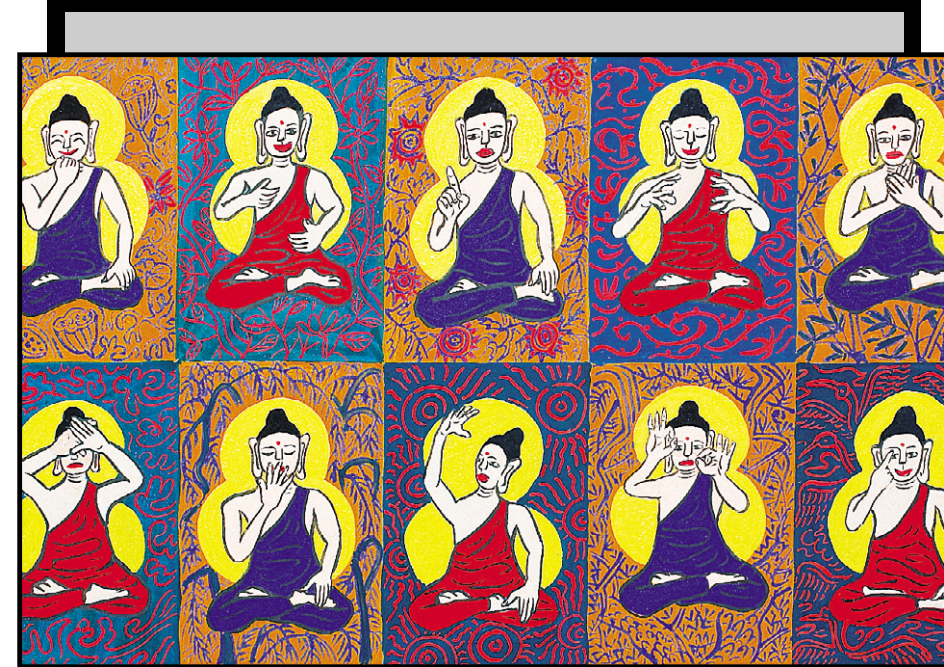
“정말 방대하고 잘 보관돼 있는 자료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번 앨범은 국립국악원과, 국악전문가들을 통해 선별한 곡들을 앨범에 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김 대표는 존 레비 컬렉션을 10장의 CD로 선별했다. 그 결과 앨범에는 관악영산회상, 영산회상병곡, 불교음악, 궁중음악, 민속음악 등 다양한 한국전통음악이 망라됐다.

“존 레비는 종교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란 것은 사람의 영혼을 매만져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 레비가 녹음한 영산회상, 불교음악 등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의 정취를 느껴 보십시오.”

“이 앨범을 통해 대중들이 한국에는 몇 드러진 예인(藝人)들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국악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앨범이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범구경’을 수화로 말하고 있는 이호신 화백의 ‘천불도’.

한 가지 부처 나뉜다

이호신 화백이 6년 여에 걸쳐 완성한 천불도를 세상에 선보인다. 그가 그린 천불도에는 천 가지의 모습을 한 부처가 천 가지 표정으로 천 가지 말을 하고 있다.

백인 흑인 황인 등 인종을 망라한 부처, 왕크하는 부처, 안경 쓴 부처, 컴퓨터를 켜고 책을 읽는 부처 등 다양한 부처의 모습이 천불도를 통해 등장한다.

이 화백은 이번 천불도를 “위엄과 권위로 가득한 부처가 아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간적인 부처, 순진무구한 부처, 우리 곁에 가까이 존재하는 ‘일상의 부처’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천불의 배경은 전통 문양부터 맨해튼의 마천루까지 동서양 고급을 막론하는 도상을 그려 넣었다. 또한 화백은 오방색의 원색을 근간으로, 다채로운 간색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천불의 이미지를 창출해 냈다.

특히 이 천불도에서는 부처가 범구경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화백은 이를 두고 “한 목소리의 절제된 화음이 아닌, 저마다 메시지가 분명한 활기찬 화음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방도”라고 말했다.

경주대 문화재학과 정병모 교수는 이호신 화백의 작품에 대해 “그의 선은 세

련되지 않고 질박하다. 민화를 보는 듯 문인화를 보는 듯, 소박하지만 품위가 깃들여져 있는 그의 작품은 ‘일상의 부처’를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작품”이라며 “전통의

이호신 화백 6년 간 작업

진리의 숲 천불만다라 3월 9일까지

서울 토포하우스 갤러리

보이지 않는 규범을 과감히 깨뜨린 이번 작품은 한국 불교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전시에는 천불도 외에도 현존하는 세계의 불상을 통해 불상조각의 변천사를 회화로 재구성한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불교국가의 대표 불상을 선별해 진리의 화신으로 표현한 불화도 45점을 함께 전시한다.

이호신 화백의 ‘진리의 숲 천불만다라’전은 2월 25일~3월 9일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02)734-7555

이은정 기자

비누독을 완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1.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2.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3.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구 후 닦아줍니다.
- 4.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5.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매미,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지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신타일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분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 격 - 30cm x 30cm(S) / 30cmx50cm(L)

위생·항균·향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 각 15,000원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매미,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지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 격 - 전신용 (90cm x 130cm)

건포, 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를 중심으로 등골과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용으로 건조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각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조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좋아지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진 의심을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갑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얼어있으므로 때가 안 갑니다.
- 한지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물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향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물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